

[아트인선정 불만한 전시] **UNC**갤러리, 롯데갤러리, 두.. 해외와 국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 한자리에

CNBNEWS 왕진오 기자 / 2012- 04- 01 17:13:44



▲ 이창민, 'Seilakrobat'. 250x200cm, oil on canvas, 2009. ©2005 CNBNEWS

UNC갤러리, 이창민의 '메타상상우화'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건너간 독일에서 현재까지 생활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창민 작가. 그의 작품들은 일상적 소재와 조화된 독특한 색감, 과감한 붓 터치로 강한 인상을 남기며 독일 현지 미술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국미술시장에 소개 된 후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그의 작품에 대한 기대는 현재 한국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증폭되고 있다.

오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UNC**갤러리에서 그의 첫 한국 개인전이 열린다. 그의 그림이 독일에서 각광받게 된 이유는 그림에 드러나는 그만의 색감과 표현법, 완성도에 있었다. 작가는 주로 원숭이, 개 등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린다. 작품 속

동물들의 외형은 기존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색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듯한 형광색에 가까운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창민의 그림은 그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관객에게 이야기의 주인이 되게한다. 한편의 우화 같은 장면들을 통해 각자의 모습을 투영시키며 상상력을 발휘하게 만들기 때문에 작가가 내놓는 그림은 어느새 우리의 것이 되는 느낌을 준다.

이창민은 2002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를 졸업한 후 2003년 독일로 건너가 뉘른베르크 국립미술대학에서 수학하게 되면서 독일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화가이자 교수인 랄프 플렉(Ralph Fleck)의 눈에 띄게 되었다. 졸업 후에도 랄프의 수제자로, 때로는 그림을 그리는 동료로서 현재 독일 미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 하고 있다.



▲ 문성식, '6월의 뽕꾸기'. 종이에 연필, 53x38cm, 2002. ©2005 CNBNEWS

롯데갤러리 일산, '감성의 기록:드로잉' 전

작가의 감성을 솔직하게 담아내는 드로잉을 통해 현대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광범위한 드로잉 영역의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이번 전시에는 강경구, 김을, 문성식, 안두진, 허윤희 작가 5인이 '작가노트로', '일기로서', '기억의 편린으로서', '상상의 단면으로서', '행위의 흔적으로서' 의 드로잉 240여 점을 4일부터 29일까지 롯데갤러리 일산점에 펼쳐 놓는다. '감성의 기록:드로잉'전은 과정과 실험적인 시도들의 가치, 드로잉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로 다가온다.



▲ 홍경택, 'Pens 3 (detail)'. 259X776cm, oil on linen, 2001- 2010. ©2005 CNBNEWS

두산갤러리, 홍경택 개인전 '**Full of Love**'전

볼펜, 연필, 책 등 일상적인 사물들로 화면 전체를 채우고,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는 홍경택의 개인전 **Full of Love** 가 5일부터 29일까지 종로구 연지동 두산갤러리에서 진행된다.

그의 회화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균형을 이루는 평범한 물체들을 본래 재질이 가지고 있는 가벼움을 넘어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로 변형시킨다. 화려한 색채와 매끈한 질감의 필기구들이 마치 무한 증식하듯 화면을 여백 없이 꽉 채운다.

과장된 크기와 색채, 여백이 부재한 그의 그림은 현실에서 파생되는 강박의 극단적 표현이며 현대 사회의 편집증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다.<왕진오 기자>

